

아산뉴스

2005년 9월 14일 (수요일) 제141호

개척자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하자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고장, 서로 믿고 함께하는 도시



아산 맑은 쌀

발행인: 아산시청 / 편집: 공보체육과 / 우편번호: 336-701 /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124(온천동1626) / 전화: (041) 540-2020 / 팩스: (041) 540-2162 / http://www.asan.go.kr

“아산 맑은 쌀” 2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의 쌀로 선정

농림부와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05러브미(LOVE米)로

아산 맑은쌀이 농림부와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2005년 최우수브랜드로 선정 되고 이와함께 러브미(LOVE米) 인증으로 지난해 대상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고 품질의 쌀임을 입증 받았다.

아산 맑은쌀은 농림부와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전국에서 유통되는 1300여 브랜드 중 71개 평가 제품을 1차 선별하여 이를 대상으로 밥맛과 색도, 순도 등 품질을 종합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해 그 명성을 드높였다.

특히 아산 맑은쌀은 평가단이 기준으로 한 1,400점 만점에 1184.4점을 받아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 되었고 이 평가를 주관한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이 아산 맑은쌀의 우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배조건, 철저한 관리, 질소질 비료사용



▲ 전국 1300여 브랜드 중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아산맑은 쌀

언제든 품질향상에 노력한 점과 끊임없는 교육을 통한 농민들의 참여의식 고취, 고품질쌀 재배방법 홍보, 생산현장과 가공공장에 CCTV설치를 통한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및 생산이력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함께 저온저장(10℃이하의 품종별 구분보관)과 주문 도정, 도정후 품질 검사를 통한 합격품 공급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오늘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 맑은쌀을 생산하고 있는 영인종합미곡처리장 한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농가, 아산시, 미곡종합처리장, 농업기술센터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한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브랜드 명성에 걸맞게 고품질 아산맑은쌀 생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가위! 고향아산이 당신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

외지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을 찾나 자매를 지내고 조상의 표를 알아보는 안가위가 가까워 음에 따라 20만 아산시민이 구석구석 먼지도 털고 쓰레기도 치우면서 깨끗한 고향에서 손님을 맞도록 준비에 나섰다.

■ 20만 전시민 대청소로 손님 맞을 준비

지난 9일에는 20만 전시민이 대대적인 추석맞이 범시민 대청소를 실시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하천 등 취약지역은 청결책임분담제로 지정된 266개 기관과 사회단체가 맡았고 그 밖의 지역정소에 공무원과 시민들이 힘을 더했다.

또한 마대에 모아진 쓰레기들을 청소 수거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등 깨끗한 아산 만들기에 모두가 한마음이 됐다.

■ 스마트도시 불법벽보는 싫어

이와함께 시는 명절 분위기를 틈타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는 불법 벽보물도 모두 정비하기로 하고 공무원과 광고업계 종사원 40인을 불법광고물 정비

단으로 구성해 국도와 지방도 등 4차선 대로변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강광고개시내 외에 있는 연수막은 가압적 없애고 도로변에 나와 있는 일간판, 에어라이프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가꾸고 통행에 불편함도 없애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가위를 전후하여 도로 노면 청소차와 일반쓰레기 수거차를 이용해 70여 환경가죽이 시가지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아 처리 하므로써 쾌적한 고향의 이미지를 만들고 편히 쉴 수 있는 고향, 푸근한 고향 만들기에 앞장 선 다는 계획이다.

■ 쉼터, 도심공원도 가지치기등 새단장

이와함께 아산의 곳곳에서 시민들이 쉼터로 사랑 받고 있는 자연공원도 한가위를 맞아 새단장을 한다.

온천동과 권곡동 등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 25개소와 남산도시자연공원 외 5개소의 나무 가지치기, 제초작업으로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쾌적한 도시공원의 향터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 만평

정 세민



행정기구개편,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시가 20만인구시대와 함께 기구를 개편하면서 신설된 부서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조직의 활성화와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3개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10개 담당도 신설했다.

그동안 신규 직위 채용으로 부족한 인원충원과 계약을 통한 전문가 영입

등 기구 개편에 따른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시는 새롭게 신설된 부서에서 기존의 업무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창의적이며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신설된 재정심사담당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시 계약진

에 원가분석등 재정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도록 7월 지정심사업무처리 규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사는 2억원이상, 용역 1억원이상, 5백만원이상의 물품구매를 재정심사의 대상으로 시장조사,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 되기 계산을 거쳐 계약을 실시하여 8월 31일까지 21

건의 재정심사를 통해 3억8천여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민들의 행정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인 과제 발굴과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실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가위에도 쉬지않는 병의원, 약국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한가위에도 문 연다

아산시 보건소는 한가위 연휴기간 중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상 진료와 방역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한가위 연휴 기간중 응급환자 및 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도 지정·운영한다.

또한 1339 응급환자정보센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 갔다.

이와함께 아산시 보건소에 진료안내 전화 544-4000번을 설치 운영하며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명단을 보건소 홈페이지 및 시청홈페이지에 게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연휴기간중 24시간 운영 응급·당직 의료기관

※ 진료일자 : 9월 17일~19일 19일 (24시간 근무)

| 업종 | 업소명 | 전화번호 | 업종 | 업소명 | 전화번호 |
|----|---------|----------|----|--------|----------|
| 응급 | 한사랑아산병원 | 539-7500 | 병원 | 성애정신병원 | 543-3580 |
| | 아산한국병원 | 545-6114 | | 아산정신병원 | 548-9851 |
| 병원 | 연대병원 | 546-3636 | | 아산삼연병원 | 549-7575 |

■ 연휴기간중 운영 약국

※ 9월17일, 18일, 19일 운영약국 : 신성약국(545-4141), 성심약국(542-0081), 명신약국(542-3041), 대동약국(545-2089), 대성약국(545-4749), 새김약국(541-7747), 다사랑약국(532-6789), 온양대나약국(549-0216), 종로57약국(531-9351), 둔포약국(531-7164), 광해약국(546-4566), 아산약국(545-2284), 신창약국(544-7417), 동내약국(531-4326), 신한약국(541-8272), 최연태약국(533-0238), 새아산약국(533-6423)

| 업소명 | 전화번호 | 9/17/9/19 | 업소명 | 전화번호 | 9/17/9/19 | 업소명 | 전화번호 | 9/17/9/19 |
|--------|----------|--------------------|---------|----------|-----------------|--------|----------|-------------------|
| 유진약국 | 545-3569 | 9:00-20:00 | 백산대성약국 | 544-4554 | 9:00-22:00 | 별명약국 | 533-1144 | 9:00-21:00 |
| 우리약국 | 531-2053 | 8:30-22:00 | 큰사랑약국 | 541-3433 | 9:00-12:00 | 오산종로약국 | 549-4131 | 8:30-22:00 |
| 새서당약국 | 545-4850 | 8:30-15:00(17) | 시민약국 | 545-2219 | 9:00-22:00 | 다모이약국 | 533-0377 | 9:00-13:00 |
| 조약국 | 545-4007 | 9:00-22:00 | 삼산약국 | 543-6670 | 9:00-22:00 | 금강약국 | 532-6655 | 9:00-12:00(17) |
| 대원약국 | 545-2071 | 8:30-14:00(17) | 약산약국 | 544-4949 | 9:00-21:00 | 한미약국 | 548-9664 | 9:00-12:00(18,19) |
| 모범약국 | 531-2200 | 8:00-22:00 | 온양시민약국 | 544-2219 | 9:00-19:00 | 녹십자약국 | 533-6080 | 7:00-20:00 |
| 세진약국 | 542-4200 | 9:00-22:00 | 이흥약국 | 547-2714 | 9:00-21:00(17) | 무지개약국 | 532-7554 | 9:00-13:00 |
| 해니로약국 | 541-7555 | 8:30-22:00(17) | 중앙약국 | 545-2082 | 9:00-22:00 | 유정약국 | 549-5315 | 9:00-12:00(17) |
| 서울백병원 | 534-6633 | 9:00-22:00(19) | 대광약국 | 544-0655 | 9:00-21:00(17) | 송악약국 | 543-5795 | 9:00-22:00 |
| 성림약국 | 544-7582 | 9:00-22:00 | 대지약국 | 542-2244 | 9:00-21:00(17) | 세계로약국 | 549-4161 | 9:00-22:00 |
| 도음약국 | 546-7579 | 8:30-19:00(18,19) | 음봉약국 | 533-8075 | 9:00-22:00 | 태평약국 | 545-7582 | 8:30-22:00(17) |
| 이화약국 | 545-1157 | 8:30-23:00 | 성보약국 | 544-4288 | 8:30-22:00 | 오산종합약국 | 533-3534 | 9:00-22:00 |
| 봉곡이화약국 | 548-4163 | 10:00-18:00(17,18) | 온누리신라약국 | 549-6255 | 10:00-22:00(17) | 보진약국 | 531-4466 | 9:00-22:00 |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리자

모두가 함께 모여 차를 끓여 나눠주고 성의를 하며 같이 웃고 즐겁게 시내는 수석이 아니라서 만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사회 경제가 발달하여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안타깝게 할 뿐이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지는 알 모르겠지만 개개인의 속사정을 떠나서 사회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메카니즘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 경제 대국 11위인 나라에서 문제가 아니 될 수 없다.

세상에 누구인가를 잘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잘 살고 못사는 것이 꼭 자신들의 잘 잘못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리라. 성공이란 매일 귀에 솔깃한 의욕과 부정을 우기는 인간이 보아오며 실패란 명예 속에서도 진실의 존재를 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과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 평가로 인생 자체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 역물량이 없겠는가? 못사는 것도 억울한 데 그 인생조차 그렇게 비이러면 세상에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어찌 들겠는가?

사회는 공동체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 인간의 사회는 더욱 그러하다. 서로를 도우면서 서

로의 부족함을 메꾸어 나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것이다. 이런 곧 사회모임 기풍인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틀이라 하겠다. 이는 특히 우리 민족 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명절을 통하여 그 모습을 현상적으로 잘 보여 주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보살핌이 조금씩 조금씩 단절되기 시작하였고 우리 사회 한 편에는 추석의 나들이를 억지로 외면하는 사람들이 지리하게 되었다. 남들 같이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는가? 이는 이리저리한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도 안 된 안락한 나을 뿐이나,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 편에는 갈 수 있어도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연휴 기간을 그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투자한다. 그래서, 외국으로 갈 즈음 시더 가거나 가족 여행을 가기 위해 자들로 병절의 연휴에 고향은 항상 북적댄다.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양상이 우리의 마음을 슬슬하게 한다. 물론 잘 살아가고 외국으로 여행가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댓가를 누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라의 경우에는 다르다. 어찌 보면 자연발생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어느 사회이고 피해갈 수는 없지만 이를 조정하여 전체적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라뿐이며, 그것이 나라의 존재이유이다. 그러던 의미에서 우리는 나라를 소중하게 여긴다.

어느 사회이고 간에 사회적 겹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겹은 방지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방지하면 종국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겨 사회 불안 내지 분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사회이고 간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나라가 이러한 겹을 풀어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사회를 보존한다. 그리하여 우리라는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인성이 좀 두터워졌다. 한꺼번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적 정체성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우리 사회 내에는 타향에서 추석의 보름달을 슬슬히 바라보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의 삶은 이웃을 한 번 생각해 보며 그들의 서글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보자. 그래서 반년만 이어져 내려온 민족의 정신을 되살려 모두가 즐겁게 한 해의 결실을 추수할 수 있는 명절이 되도록 하자. 올 해의 보름달은 온누리를 밝게 비추어 주기에 일찍이 아무도 그림자를 걸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아산 시민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 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아산뉴스 8월호(제140호)의 2면 내용중 강당금 계곡 상인이용건물신축은 현재 실시 설계추진중 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제9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아산시의회에서는 2005. 8. 29 부터 9. 7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98회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업무 보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의 바쁜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회 기간중에 2005. 9. 6(화) 09:30분에는 서해안 지역에 충남도청이 이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의원 간담회 개최내용

지난 2005. 7. 20 충남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향후도청이전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



■ 예산안 심사 상임위 활동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임시회에서의 안전처리 결과

-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아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 "원안가결"
- 2005년도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아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 "수정가결"
- 아산시 평생학습조례안 → "원안가결"
- 아산시 공중보건의사환동장려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아산시 주차상소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아산시 토지평가위원회제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2005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 2005년 재해대책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수정가결"

□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리결과 : 수정가결

| 구분 | 제2회 추경예산(안) | % | 기정 예산액 | % | 증·감 | % |
|------|----------------|-------|-----------|-------|--------|------|
| 합계 | 619,539 | 100.0 | 557,756 | 100.0 | 61,783 | 11.1 |
| 일반회계 | 387,985 | 62.6 | 351,806 | 63.1 | 36,179 | 10.3 |
| 특별회계 | 231,554 | 37.4 | 205,950 | 36.9 | 25,604 | 12.4 |

□ 2005 을지연습 훈련 참가자 격려

아산시 의회에서는 2004년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되었던 2005년 을지연습 훈련자인 아산시청 상황실과 아산경찰서 상황실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 을지연습 기간중 아산시청과 아산경찰서 위문



가을의 불청객 태풍 이렇게 대비하자

1. 태풍과 집중호우에 관한 정보를 주의 깊게 눈고,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합니다.



2. 함부로 외출하지 말고 외출한 경우에는 신속히 귀가합니다.
3. 집주변을 살피고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여 집안으로 옮기거나 단단히 고정합니다.
4. 현관과 창문 틈에 비닐 테이프를 붙입니다.
5. 장전에 대비하여 회중전등과 양초를 준비합니다 예비전지도 잊지 만시다
6. 언제든 피난할 수 있도록 가정용 비상용품 미리 준비해 둡시다.
7. 침수에 대비하여 가재도구를 가능한 높은 장소로 옮깁시다.
8. 병사, 휴가, 오락사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9. 가스, 전원 등은 재해발생 우려시 완전히 차단합니다.
10. 가족회의를 통해 다시한번 피난장소와 피난 경로를 확인해 둡시다.

■ 피난시 주의사항

1. 태풍과 호우 발생시를 대비하여 피난하는 장소는 강풍을 견딜 수 있는 곳과 침수의 위험이 없는 높은 지역을 미리 선정합니다.
2. 홍수 등으로 도로 소통에 어려운 장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몇 개의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적절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강풍 등으로 부착물 등 위험한 물건이 날아올 위험이 있으니 피난시에는 반드시 머리보통 양구와 수건을 지킵니다.
4. 물이 흐르는 곳을 통과할 경우 돌이나 맨흙 등에 유의하고, 발걸음 살피며 걸어갑니다.

■ 홍수 위험이 있는 장소

1. 홍수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는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 등입니다.
2. 태풍과 호우시에는 물이 불어 수압이 높아지고, 제방이 붕괴되며, 일시에 물이 불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 다. 준비합니다.
3. 하천주변을 걸을 때에는 충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교통행정서비스 현장

1.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 매년 교통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연 3개소 이상의 교통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교통안전시설, 교통편의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고장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보수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실태조사 후 불합리한 노선을 연2회 이상 개선 보완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운수업체를 연4회 이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개선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즉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3.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하여

-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유휴, 공한지 등을 연1회 이상 일제 조사하여 주차 공간으로 조성 주차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도단속반(차량 2대, 단속요원 5명)을 편성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 민원서류는 법정처리기간보다 20%이상 단속 처리하겠습니다

외국 여성들은 도자기를 어떻게 빚을까?

외국인 여성, 도자기도 빚고 두부도 만들며 전통문화를 익혀요

시아 아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여성(40쌍 80명)이 도자기도 빚고 두부도 만들면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외국인여성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9월 28일 운영키로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부가 함께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삶의 여유를 찾아주고 우리의 문화와 지역의 이해를 통해 건전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졌다.

행사에 참여하는 40쌍의 잉꼬들은 두 대의 버스로 음봉면 송촌리 소월도예를 찾아 정(고요)과 동(유적임)의 조화를 흠여 풀어 넣어 자기만의 도자기 작품을 만들어 본다.

야생화와 어우러진 도자기도 감상할 수 있는 소월도예의 일정이 마무리 되면 조선시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



▲ 지난해 외국인여성가정 김장김치 담그기와 떡메치기

는 외암민속마을로 자리를 옮긴다.

외암민속마을에서는 옷감에 물을 들이는 염색체험과 식탁에 자주오르는 서민식품 두부를 만들어 보고 우리네 선조들이 즐겼던 널뛰기, 그네뛰기, 제기차기 등으로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덜어내 잠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직접 만들어 본 두부요리와 함께 의미있는 저녁식사를 마지막으로 하루동안의 전통문화체험을 마치고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 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시 관계자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알게 되므로 좀더 빨리, 자연스럽게 가정생활에 익숙해 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박하고 작은 바람을 이야기 했다.



시정으로 느껴는 아산



▲ 뻘~임! 전국 최고의 운양한울고등학교 고적대



▲ 아산필하모니 감미로운 선율로 시청을 찾아



▲ 엄마젖 먹고 건강체크 될래요



▲ 아름다운 꽃길, 정다운 고향 아산



▲ 아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재경향우회 도서기증)

찾아가는 복지, 자립 복지 실현으로 기관표창

2005년 국민기초생활업무 충청남도내 우수기관으로

시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업무 추진 하면서 찾아 가는 복지, 자립 하는 복지 예방복지를 시민 중심으로 실현하여 충청남도내의 우수기관으로 선정, 제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을 매일 방문할 수 있도록 요구르트 배달 지원사업을 특수사책으로 발굴 운영하면서 질병발생, 사고 긴급상태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호조치를 실현해 오고 있다.

또한 17개 읍·면·동별로 사랑나눔미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집수리사업, 이미용, 반차배달, 도시락배달, 김장김치저당, 목욕봉사, 청소봉사, 안부전화하기, 말벗하기등 어려운 이웃이 실감 하고 감동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와함께 공무원과 어려운 가정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매월 1~3만원정도의 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러브하

우스 사업(인주·송악·배방)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복지 실현한 것이 기관표창의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시는 4,059가구 7,359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가급여 5,666백만원, 자녀 교육급여 246백만원, 장애비 및 해산비 37백만원을 지원, 보호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어려운 가정 41명에 48백만원, ▲빈곤 가정 위기지원 18명에 15백만원을 지원하고 1,898명에게 23백만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간병사업, 집수리사업, 청소사업, 폐자위활육사업, 복지도우미사업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현하면서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사업으로 4,924세대 8,877명에게 13,68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신정호! 자연 속의 시민체력단련실

신정호 종합개발과 연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맑은 물, 퇴화기로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산책로를 만들어 발맛까지 공원, 조각공원, 얼음조각(겨울철) 등 시민의 휴식공간 만들기에 공을 들여온 신정호에 생활체육공원이 들어 선다.

시는 그동안 도심지에서 가까운 호수 신정호가 넓은 잔디밭과 우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시민의 쉼터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서 여름이면 다양하고 빈번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신정호에 국비와 시비 20여억원을 들여 8700여평의 생활체육공원 만들기로 했다.

다음달에 시작해 신정호 생활체육공원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이면 시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자연 속의 시민 체력단련실에서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면 휴식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정서함양,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생활체육공원에는 산책로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인라인도로가 만들어지고 농구장과 배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실, 풀장 등의 시설이 들어 선다.

또한 나무를 심고 수변테크시설과 파고라 등의 부대시설을 만들어 체력단련과 휴식을 함께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도 1일 500여 명이상이 조깅과 기타 운동을 즐기

는 등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외인을 감안하여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농촌사랑, 아산사랑

내고장 특산물 팔아주기 기업체도 적극 동참

시와 기업체가 아산의 농촌을 사랑하고 아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고장 특산물 팔아 주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한가위를 맞아 관내 기업체의 직원들이 고향을 찾을 때 직원들의 근무지 아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선물로 준비하고 있다는데 착안하여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한다.

많은 임직원이 근무하는 삼성전자 배방사업장에 9월 5일부터 농특산물을 전

시하고 9월 13일부터 3일간 직접판매도 한다. 또한 삼성코닝정밀(주)사업장에는 9월 8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시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므로서 기업체 임직원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한가위 산물을 손쉽게 준비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생산품을 재값을 받으면서 안정된 판로를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 임직원들이 근무지 아산의 농특산물을 일가친척과 함께 나누면서 아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아산의 홍보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올해 농림부와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전국 1300여 쌀 브랜드중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아산 맑은쌀을 비롯해 아산배, 물, 사과, 포도, 버섯, 녹용 등 11농가, 42제품을 전시 판매한다.



시민의 발, 사업용 차량 이것만은 꼭 지켜야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용 차량들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번거 위한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와 단속에 들어 갔다.

9월부터 12월까지 운수업체에 대한 자체교양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냉·난방시설, 시트, 안경벨트, 유리창, 차내의 청결상태도 점검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속도제한장치, 전자감응장치 등 안전관련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작동 여부도 집중 점검하며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징수 등 운송질서 위반 행위도 이번 기회에 아주 없애지도록 철저히 단속한다. 이와함께 차량통행 방해 등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왔던 도로변, 주택가아파트 진입로의 발생주차 차량과 주·정차 위반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이용객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는 것도 아산의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 하나의 방법임을 깨달아 사업주 스스로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내버스, 견제버스, 택시, 렌트카, 화물(貨物) 등 사업용 차량을 점검하여 자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고지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도 마일리지 시대

시는 오는 11월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 은행의 문을 열 계획이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은행이란 우리

지역의 최대 상암인 여여출 때 서로 돕고 희생의 힘을 북돋아 주는 미풍양속을 그대로 이어 받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자원봉사 마일리지는 봉사마일리지 통장을 발급 받아 봉사활동 기록을 관리하고 쌓여진 실적만큼 도움이 필요 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도움을 되돌려 받도록 하여 상부상조이 봉의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



이다.

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시중 은행의 입·출금 시스템과 비슷한 자원봉사 마일리지

은행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9월부터 두달간 리더기 설치 등 준비작업을 거쳐 11월 문을 연다는 계획 이다.

이제도가 정착되면 자원봉사 분위 기 확산과 함께 어려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돕는 건전한 훈훈한 아산 만들기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전화 540-2033)

새로워진 주소, 찾기도 쉬워졌다

도로명, 건물명이 표시된 새주소 안내 표지판 세워

시는 도로명 부여사업이 일부 완료된 관내 6개동지역에 보다 편리하고 쉽게 목적지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된 안내 표지판(본청, 온양1동~온양6동)을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표지판은 아산시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시민들이 목적지를 한눈에 찾아 볼 수 있도록 도로명, 표지기, 건물번호, 주요 건물명이나 건물명 등을 표시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 확실한 길안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새주소 안내 표지판을 이용하면 길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우편생활주소, 방범, 화재, 물류택배 등 위치 정보제공에도 활용하게 된다.

시는 현재 추진중인 읍·면지역도 사업이 완료 되면 읍·면사무소 및 마을리버트 새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 이다.



음향동 소식

영인초등학교에서 노래 솜씨 뽐내세요 한가위 맞이 화합의 노래자랑, 9월17일에

영인자율발명대(대장 정낙남)는 한가위를 맞아 주민, 기업체임직원, 외국인근로자등 전시민이 참여하여 화합의 노래자랑 한마당을 펼친다. 한가위 보름달이 떠오를 시간에 풍년농사를 축하하며 일년 동안 맘 흘렸던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또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 활동에 전념하였던 근로자, 기업체 임직원, 외국인근로자도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친밀감을 돈독히 하면서 정감어린 훈훈한 한가위를 맞이한다.

풍성한 가을, 풍년 보름달과 함께 어제를 활짝이며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만큼 많은 시민들과 어우러진 한가위가 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영인면 자율발명대 543-2113

(영인/주부 명예기자 송경옥)

음향산동에 주민종합사회복지관 세워진다

아산 북부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및 복지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주민종합사회복지관이 음향 산동에 들어선다.

지난 12일 산동주민복지협의회 주관으로 300여 주민과 함께 주민종합사회복지관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을 위해 산동리 주민들은 음식을 장만하여 즐거운 다과회도 가졌다.

이번에 건립될 주민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1층과 지상3층, 총490평의 건물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음향 산동 주민뿐만 아니라 아산 북부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음향 산동지역은 삼일아파트, 잠미아파트 등 주민 밀집지역으로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부녀회를 중심으로 어르신 이웃돕기운동, 내고갈 깨끗이하기 대청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가 무르익는 화가에애한 지역으로 소문나 있다.

(음향/주부 명예기자 오인희)

무연분묘 별초 해 드립니다

도고면 새마을남·녀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이번에는 무연분묘 별초에 나섰다.

지난 12일 도고면 새마을 남·녀지도자와 이장, 자원봉사자들 100여명은 화천리에 소재한 공영묘지에서 무연분묘 50여기씩에 대해 풀을 깔고 청정물을 제거하는 등 별초와 함께 말끔히 주변정리를 했다.

풀깎기 기계를 이용하여 정성을 다해 한기한기 풀을 깎으면 여성참여자들은 팔키로 깎인 풀을 묶어 내리며 뒷정리를 하는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리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이라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다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특히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음료와 과일도 복도 축하고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준비한 모듬 밥을 먹으면서 내내 한가위에도 함께 모여 별초를 하지도 일을 모았다.

별초에 참여했던 김점선 새마을회장은 "우리 도고면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고향의 훈훈한 정을 느끼고 넉넉한 인심을 맡겨 누리고 돌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별초에 참여 했다면서 내내에도 기회가 되면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고/주부 명예기자 이인자)

따스한 이웃이 있어 한가위가 훈훈합니다.

- ▶ 신도리(주) 어려운 가정에 쌀 200포(20kg들이-1천만원 상당) 기탁
- ▶ 신정면 김남희보신방 명예인사실 5개소에 매월 쌀(20kg들이)2포씩 전달
- ▶ 대한지적공사 충청본부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생활이 어려운 2가정에 50만원 전달
- ▶ 삼성전자 LCD공장 팜정사업장 복지시설에 아산쌀은밥, 생활용품등(15백만원 상당) 전달



유관기관 소식

현충사앞마당에서 투호놀이를

□ 한가위 연휴기간중 민속놀이 체험 할 수 있다

이산신장군의 영정을 모신 현충사에서는 한가위 연휴기간중(9월 17일~9월 19일) 준경내에서 각종 민속놀이를 체험 할 수 있다. 또한 가을 하늘과 넓은 공간에서 제기차기, 투호, 굴렁쇠 굴리기 등 풍습의 세계로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흥겨운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이산신장군의 충효정신을 배워 보는 색다른 한가위를 보낼 수 있다.

□ 즐겨온 굴렁쇠 굴리기

옛날사람들은 곡식이나 술 등을 풍근

통에 넣어 보관하거나 운반하였다.

그런데 등근통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였으려, 이러한 기술을 배우는 방법으로 놀이가 유래되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통에 갇힌 나무테(대나무나 흙 등)를 이용하다가 쇠테를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에 자전거가 들어온 뒤에는 자전거바퀴나 수레바퀴를 많이 이용하였다. 놀이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봄, 가을철에 많이 굴렀다.



가늘고 탄력성이 있는 막대기가 좋다.

• 놀이 없는 통굴레 : 굵은 철사로 직경 50cm정도의 등근원을 만들고, 채는 철사로 2자모양을 만들어 한줄을 10cm정도의 통나무에 끼워 손잡이로 만든다.

2)놀이

• 릴레이식놀이 : 먼저 목표물 정해놓고 빨리 달려 돌아오는 쪽이 이기는 경기이며, 양편으로 나누어 릴레이식으로 계속 반복하여 최종주자가 먼저 도착하는 팀이 이기게 된다.

• 전차놀이 : 일정한 곡선 등 여러가지 선을 그어놓고 쓰러뜨리지 않고 곡선대로 굴레를 굴리는 방법으로 주로 개인경기에서 많이 이용된다.

한국전력 아산지점 홈서비스 받으세요

국내설비 고장시 전기공사업체 한전에서 전화 한통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리비는 고객부담입니다

□ 고장신고 : 국번없이 123번(고객서비스 센터)

□ 문의사항 : 한전아산지점 배정운영실 (☎ 539-3268, 3269)

□ 내선공사 유형별 고객부담 공사비

• 노후수인사단기표제(220V 30A)~30,000원/대50,000원/대(할증시) >자재비, 인건비 포함, 출장비 별도

• 노출전선 교체(노출용비닐 케이블 2.0 X 2C)~3m이하 : 20,000원(할증시 30,000원) 3m초과 : 30,000원(할증시 40,000원) >자재비, 인건비 포함, 출장비 별도

• 비고 - 출장비(시내지역 : 10,000원/읍·면지역 : 15,000원), 할증가격 :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적용(야간시간 : 22:00~익일 06:00)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신고포상금제 안내

1. 사용규제 1회용품 : 1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합성수지류 도포된 경고산전등
2. 무상제공금지용품 : 1회용 컵, 면도기, 치약, 샴푸, 린스, 봉투, 소풍백, 막대풍선, 비닐방석
3. 대상 업소 : 식당, 목욕탕, 여관, 도·소매인, 오락장, 체육관 등
4. 사업장내·외 자판기 설치하여 셀프 및 사업주가 금전을 제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 할 수 없음
5. 허용된 경우 : ① 혼례, 회갑연, 상례의 하객, 조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능
② 음식을 배달하거나 가져가는 경우 가능
③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 가능
6. 미수용되는 예외 : ① 혼례, 회갑연, 상례의 하객, 조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능
② 음식을 배달하거나 가져가는 경우 가능
③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 가능
7. 신고방법 : www.one.me.go.kr, 아산시 청소과 재활용담당 (☎041-540-2070)

- 요청에 따라 제공가능
- ⑥ 생선, 정육, 채소 음식료품 결면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보관제품 합성수지 재질 봉투 사용 가능
 - ⑦ A4, 또는 1000mm이하 종이봉투 무상제공 가능
 - ⑧ 물과 국물을 담기위한 경우는 합성수지 용기 사용가능
 - ⑨ 식품위생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사용가능
 - ⑩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은 사용가능

2005년 하반기 민방위교육 일정안내

| 교육 일시 | 교육 대상 지 역 | 교육 장소 | 교육 일시 | 교육 대상 지 역 | 교육 장소 |
|-----------------|---------------|-------------|------------------|------------|----------------|
| 9. 22 오전 | 온양1, 온양2, 온양3 | 국 민 생활관 대강당 | 10. 14 오전 | 위내(아만도(주)) | 위내(아만도(주)) 교육장 |
| 9. 27 * 오후 | 염치, 인주, 영인 | | 10. 26 오후 | 현대자동차(주) | 현 대 자동차 교육장 |
| 10. 12 * 오후 | 음봉, 송악 | | 11. 27~12. 28 연회 | * | |
| 10. 13 온양4 | | | 11. 2 오후 | * | |
| 10. 17 * 배방, 선장 | | | 11. 3~11. 4 연회 | * | |
| 10. 19 * 신창, 당정 | | | 11. 21 오전 | 제1차 보충교육 | |
| 10. 27 오후 | 화생방 분대원 | | 11. 22 오전 | * | |
| 11. 7 오전 | 돈포, 온양5 | | 11. 23 오후 | * | |
| 11. 8 연회 | 도고, 온양6 | | 11. 29 오전 | 제2차 보충교육 | |
| 11. 15 * 적성대 | | | 11. 30 오후 | * | |

■ 교육시간 : 오전반(09:00~13:00), 오후반(14:00~18:00) - 교육시간 10분전까지 등록

* 보충교육 : 오전반(09:00~13:00), 오후반(14:00~18:00)

* 현대자동차 : 오전반(08:00~12:00), 오후반(13:00~17:00)

■ 아산시청 민방위담당부서 : 540-2264, 2265



아산시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내 · 알림



2005충청남도 노인일자리박람회

- 주 제 : 다시열자, 새로운 인생
- 내 용 : 충청남도에서 주최하는 노인일자리박람회에 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 일 시 : 2005. 10. 12(수) 오전 09:00~17:00
- 장 소 : 유관순체육관(천안시 백석동 255-1)
- 대 상 : 55세이상 남·여
- 신청서접수처 : 아산노인취업센터, 노인종합복지관
- 준비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참가신청서
주민등록증(등본사본 지참)
- 박람회 참석 이용차량 출발시간 및 장소 : 09:30(아 산시청), 10:30(아산시청), 13:00(아산시청)
- 문의전화 :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540-2837
아산시 노인취업센터 542-0462
노인종합복지회관 544-1401

짚문문화제 참여 자원봉사자 모집

- 일시 : 2005. 9. 20(월)~9.30(금)
- 인원 : 1일 79명(연인원 237명)
- 대상 : 시민 누구나
- 분야 : 문화해설안내와 9분야

| 분야별 | 원인 | 제출처 | 주요 일 무 |
|-----------|----|--------|--------------------------|
| 종합안내 | 30 | 1일 10명 | 종합안내소 운영, 관광, 숙박안내 |
| 교통 및 주차안내 | 60 | 1일 20명 | 교통안내, 주차안내 |
| 행사안내 | 30 | 1일 10명 | 행사장내·외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수거 |
| 금수 및 미관관리 | 15 | 1일 5명 | 금수행사소 운영 및 금수지역 미관보호소 운영 |
| 의료봉사 | 3 | 1일 1명 | 구급조교, 응급처치, 비상약제공 |
| 전시해설장 | 30 | 1일 10명 | 행사진행 보조 |
| 주식해설장 | 12 | 1일 4명 | 행사진행 보조 |
| 민속놀이 | 9 | 1일 3명 | 행사진행 보조 |
| 외담민속관 | 18 | 1일 6명 | 행사진행 보조 |
| 예비인원 | 30 | 1일 10명 | 행사진행 보조 |

환경개선부담금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

- 납부사이트 : www.giro.or.kr(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 ~ 22:00(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납부가능은행 : 국내 18개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 고, 상호저축은행, 신협중앙회
- 납부방법 : 은행계좌로 납부
- 인터넷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방세/세외수 입' 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해당 행정구역 으로 고지내역 조회후 납부
- 조회방법 :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표시된 17자리 번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내달 4일까지

아산시는 오는 9월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0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
2005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 경 등에 의하여 지적 정리된 토지에 국한되며, 아산시의 경우 총 4,836필지이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토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등 재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납 기 : 2005. 9. 16 ~ 9. 30일까지(15일간)
- 과세건수 및 금액 :
- 주택본(1/2) : 59,569건 1,707,788천원
- 토지본(전액) : 57,381건 8,531,696천원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직접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지로납부 병행
- 공시사항
- 작년 종합토지세는 토지본 재산세로 과세되며 납기도 기존 10월에서 9월로 한달 앞당겨 과세됨
- 주택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됨
- 토지본 재산세 과세표준액 50%감액 과세
- 올해부터 토지본재산세 과표기준인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과표는 2년간 상승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게 됨
- 이렇게 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감액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임
- 아산시 시세감면조례가 9월 2일 시의회를 통과됨으로써 법적 요건을 갖추었고 12월 과세되는 종합부동산 세에도 적용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임

시민건강강좌

- 일 시 : 2005. 9. 30(금) 14:00~17:00
- 장 소 : 보건소 2층 대회의실
- 대 상 : 200명
- 내 용 : 외래강사(교수)초빙 강의, 참여자 혈압·혈 당체크, 스트레스관리, 구혈안배 및 관리, 노래교 실 및 건강지도

은옥치료실 운영 프로그램

- 일 시 : 2005. 9. 1~9. 30(매수 월) 13:30~16:00
- 장 소 : 사랑방 은옥치료실
- 대 상 : 치매 및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어르신
- 내 용 : 목욕, 이마질, 손발정리, 세탁, 말벗 되어드리기
- 기대효과 : 신체, 정신적 퇴행의 지연

사업용 차량 운행실태 점검계획

- 세부추진계획
- 단속기간 : 2005. 09. 01~12. 31(4개월간, 월2회)
- 단속대상 : 시내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화물(콜밴)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 매일 실시
- 단속(지도)반 편성
- 반 장 : 교통지도 담당·단속반 : 2개반 12명
- 중점점검사항
-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사항
- 안전관련 장치 설치(비치) 및 작동 여부
- 운송장서 문란 행위
- 자고지 외 탑승수차 사업종 자량 난숙
- 기타 행정지시 명명 위반 등
- 점검결과 조치
- 주·정차 위반차량 (택시 등) 단속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및 시정명령
- 운송장서문란 행위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 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농촌페비닐·농약빈병 수거안내

- 시민여러분 농사 후 발생하는 페비닐과 농약병을 아래와 같이 수거하시오니 환경보전을 위하여 태우거나 버 리지 마시고 모아 놓은 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아놓는 장소 : 5톤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곳
- 모아놓는 방법 :
- 하우스비닐과 멀칭(하이덴)비닐로 구분
- 농약빈병 : 플라스틱농약병과 유리농약병을 구분하 여 포대에 담아 묶어서 모아놓음
- 수거대금지급 :
- 페비닐 : Kg당 100원(시청청소행정과 70원/ Kg, 농 정과 30원/ Kg)
* 위의 지급금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농약플라스틱병 : Kg당 800원, 유리농약병 : Kg당 150원
* 위의 농약병대금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당일 또는 익일 통장 입금
- 수거연락처 : 한국환경자원사업소 천안사업소 041)566-7352 및 시청청소행정과, 각 읍, 면, 동 <한국환경자원공사 천안사업소장>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

- 기 간 : 2005. 9. 1~ 9. 30
- 장 소 : 특성동 부영아파트 외 14개 경로당
- 대 상 : 마을주민
- 내 용 :
- 한방진료 및 교육 : 한방공보의
- 뇌졸중 및 치매예방, 고혈압과 식생활 교육
- 미니노·신나는 건강재소 시노
- 혈압, 혈당 체크 및 개별교육

은양동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

- 【중국어교실】
□ 과 정 : 왕초보과정(발음,성조,기초생활회화)
□ 운영 : 매주 월·수요일 10:00 ~ 12:00
□ 개강예정일 : 2005. 10. 5(수)
□ 강 사 : 현 아산 북경중국어학원 원장
- 수 강 료 : 무료
- 장 소 : 은양1동사무소 2층(주민자치실)
- 신청 대상 : 은양1동 주민
- 신청 기간 : 2005. 9. 30(금) 까지
- 접 수 처 : 은양1동사무소
- 모 집 인원 : 35명 (선착순)
- 문의및안내 : 은양1동사무소 ☎ 540-2612
- 【산악회 회원 모집】
□ 운영 : 매월 첫째주 토요일
□ 처음산행예정일 : 2005. 10. 1(토)
□ 신청 대상 : 은양1동 주민 또는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 신청 기간 : 1차 모집 (2005. 9. 30(금)까지)
2차 모집 (수시)
- 임회비및산행참가비 : 임회비(20,000원), 산행참가 비(10,000원) (* 임회비는 연간 안전산행을 위한 보 험료 포함 금액입니다.)
- 접 수 처 : 은양1동사무소
- 모 집 인원 : 100명 내외 (선착순)
- 문의및안내 : 은양1동 사무소 ☎ 540-2612

외암민속마을에서 짚과 풀의 향연이~

10월 21일부터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열려



조용하던 조선 양반가의

아내자들 종종걸음이 빨라지고 머리에 수건을 집근
동여맨 마을 젊은이들이 조선 장터의 빛마루를 만들
기 위해 한줄이 붙박한 장대로 만지질에 여념이 없
다.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외암골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는 현
대문화에 떠밀려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네 전통민속
의 재현으로 선조들의 삶의 습기와 멋스러움을 재조명

하므로서 현대인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기를 6년째 이어 오고 있다.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준비하는
문화제의 내용도 색다르다. 농경문화에서 생활의 소
재 짚과 풀을 주제로 하는 문화제는 옛조상들의 생
활상을 그대로 엿볼 수 있으며 소중한 체험도 가능
하다.

짚으로 엮을 엮어 지붕을
헤일고 벼를 베고 새끼도 꼬아 보며 시민들이 정성
을 들여 삶과 삶도 먹구리, 맷방석, 삼태기, 방태기,
짚신 등의 생활용품도 만들어 전시한다.

이와함께 아기솟대 만들기, 한지부채 꾸미기, 황토
염색체험등의 체험행사도 준비되며 외암민속관 주변
에서는 다듬이질과 떡메치기를 구경할 수 있다.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손으로 만
져도 보고 술을 배가 고프다 때 구수
한 국밥 내음이 저절로 걸음이 조선
장터를 향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하
안 묵치마와 미디 수건을 들어맨 처
자들이 푹배기에 국밥과 파전, 껌두
기를 인신 만큼씩 듬뿍들룩 날라다
주었었는데...

시월 하순 외암골을 찾아 흥년 추
수의 기쁨과 함께 문화제를 준비하
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흥겨운 잔치
한마당에 빠져들어 봄직 하다.



짚과 풀이 작품으로 다시 탄생
(지난해 짚풀공예품 공모전시회)

음악, 미술, 그리고 詩가 있는 9월

종합예술축제 「설화예술제」 신정호에서

아산의 9월은 음악과 그림, 사진, 시, 무용 등 없는
것이 없는 종합예술축제인 설화예술제가 있어 풍요
와 여유를 함께 만끽 할 수 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이 하는 설화예술제는 넓고 시
원한 신정호를 중심 무대로 잡았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지역의 예술인들이
총 망라되어 부문별로 나뉘도록 예술의 향기를 뿜어
내면서 아산시는 흐드러진 예술향에 잠길 것으로 예
상된다.

첫날 9월 23일을 시민의 날로 이름하여 아산예술

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시청)을 시

작으로 설화문화 출판기념회,

종로경연대회와 시화,

사진 합동전시회가

있고 국악인 이광

수의 비나리 공연,

불꽃놀이로 이어진

다.

둘째날의 이름은

청소년의 날!

정보기능대학

에서 미술신가대회가

펼쳐지며 어린이 재롱잔치,

전국사진공모전시상식 및 전시와 함께 시 알

송대회, 삼도미술교류전, 축하음악회, 설화무

용제, 청소년 가요제가 선을 보인다.

마지막 날인 9월 25일은 예술인의 날로 전

국국악경연대회, 시립합창단 공연, 온천연못의

환타지(퍼포먼스), 무용초청공연, 뮤지컬들이

준비되어 있어 가을 정취와 함께 무르익은 지

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제가 열리는 동안 시민들은 취향에 따라 전시
회에서 작품을 감상 할 수도 있고 걸개그림그리기,
음치크리닉등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시민가요제, 청소년가요제에 참여하여 솜씨도 뽐낼
수 있다.

이와함께 지역예술인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을 발휘하며 지역문화 창달에도 기여한다는 자부심
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설화예술제의 의
미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